



## 문 화

새미마을의 신앙은 문화재  
수렵과 목축의 신을 모시는 새미하로산당  
산신놀이  
석불과 석불제  
허한 곳을 보하라, 답다니와 거육대  
옛 지명과 그 유래  
옛날 옛적에  
새미마을에서 전해지는 민요



## 새미마을의 신앙은 문화재

사람들이 머물러 사는 곳이면 으레 공동체 삶의 방식이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모여 사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월의 더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은 서서히 변화하는 속에서 굳어져 갈 것이다. 공동체의 길한 운명을 하늘에 비는 신앙체계, 먹을거리와 입을 거리를 구하는 생산활동체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덕체계와 같은 다양한 삶의 방편들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마련되어질 것이다. 이를 뭉뚱그려 우리는 ‘문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새미마을도 이 같은 길을 걸어왔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마을이 만들어지고 서서히 가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삶의 방편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했을 것이다. 시절에 따라,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데 더 유리한 방편을 찾아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도 새미마을 주민들이 모두 함께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이 있다. 시절이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 바로 신앙과 관련된 문화다.

새미마을의 이러한 신앙체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본향당인 새미하로산당굿이다. 그런가하면 독특하게도 불교와 유교 그리고 민간신앙이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 석불(石佛)도 있다.



새미마을의 오랜 신앙문화를 이루고 있는 새미하로산당굿(왼쪽)과 석불제(오른쪽)







새미하로산당으로 가는 입구와 안내판

**새미하로산당**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 9-2  
 소재지 : 제주시 외원동 1058

새미하로산당은 동회천마을의 본향당으로 이 마을 사람들의 생산(生産), 물고(物故), 호적(戶籍), 장척(葬籍)을 관장하는 구실을 한다. 이 곳의 당신(堂神)은 '새미하로산또'이며, 송당분향당의 여덟 번째 또는 열두 번째 아들이라고 한다. 새미하로산또는 사냥을 하는 산신일월조상(山神日月祖上)이기 때문에, 당굿을 할 때는 산신줄이를 한다. 제일은 음력 1월 14일(신과세제), 7월 14일(백중마불림제)이다. 이 당은 2005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 수렵과 목축의 신을 모시는 새미하로산당

50m 가량 이어진 당을레로 들어가면 신목(神木)인 팽나무가 서있는 당을 만날 수 있다. 수령이 400년을 넘는다는 이 팽나무는 20m 높이에 둘레는 3m가 넘는다. 제주시 당산목으로 1982년 10월 22일 고유번호 13-1-10-16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굵은 등치에서 사방으로 굽이치며 뻗어 올라간 나뭇가지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을 수호신으로서의 신령스러움을 저절로 느끼게 한다.

신목 뒤로는 대나무가 무성하게 둘러져 있어 신비감을 더할 뿐 아니라, 신당을 두르고 있는 돌담 안팎에서 자라고 있는 대나무들도 모두 신목을 향해 머리를 조아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신목과 당신의 영험함을 보여주는 듯도 하다.

세미하로산당으로 가는 올레



새미하로산당에서는 1년 두 번 당굿이 열린다. 사진은 음력 7월 14일에 열리는 백중마불림제의 한 장면. 백중마불림제는 심방이 무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제사를 진행하는 ‘얹은제’로 치러진다.

새미하로산당 오른쪽에 자리한 신목 밑으로 자연석과 시멘트로 사각형의 기단을 쌓아  
 돈대를 만들었고, 그 위로 높이 1m, 가로 3m, 세로 2m 정도의 사각형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팽나무 뒤에는 신의 거주처인 궤가 있는데 가운데가 하로산또의 궤, 그 좌측으로 꺾드르  
 (와홀), 우측으로 노늘(와홀), 가물개(삼양1동)의 궤다. 새미마을 이외의 궤들은 다른 마  
 을의 여성들이 이 마을로 시집오기 전에 모시던 마을의 본향신을 모시는 중산인 셈이다. 그  
 래서 이들이 당에 갈 때는 ‘새미하로산또’ 뭇의 메와 시집오기 전 마을의 본향신 뭇의 메를  
 함께 가지고 간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료 제9-2호로 지정되어 있는 새미하로산당은 그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남신 ‘하로산또’를 당신(堂神)으로 모시고 있다. 당곳의 본풀이로 전해지는 새미하  
 로산당의 내력은 다음과 같다.

구좌읍 송당신 소천국과 금백주 부부 사이에 아들이 열여덟, 딸이 스물여덟이나 태어나 그 자손  
 들이 전도에 퍼져서 좌정해수다(좌정하였습니다). 동회천 새미본향당은 그중 열두번째 아들로 천조  
 문 동문선십 삼천백미 일만촌 깃발 불러오던 어진 조상님 오리리감투(오소리가죽으로 만든 모자)에  
 뱀이 가죽 풀줄(범 가죽 팔찌) 매고 늑이반동개(제주 토종 사냥개)에 오를목노(내) 필목을 짓누비  
 멩(짓누비면서) 쓸 한 대를 털뜨리민(화살을 쏘면) 대강녹도 히여들고 소각록도 히여들고(큰사슴,  
 작은사슴이 들어오고), 당뜨르(신당이 위치한 광양) 천 년 오른 금폭낭 알로(금팽나무 아래로) 좌정  
 해수다.

한한(많은) 단골에 장적을 차지하고(차지하고) 낡는 생산을 차지하고 죽는 날은 물고를 돌리는  
 (사망신고 하는) 팽심 존은(평생 같은) 산신일월 조상님, 서당국서 솟아난 큰도아전 큰도부인(아라  
 동산당명) 남선발 일뢰중조광(일뢰중조와) 두 부채(부부)가 됩니다.

애기모실(마을) 상모실 업개 모실칭(업저지마을칭) 거느려 물버리 당버리(물기 있는 음, 물기 없  
 는 음) 너먹지시 흥허물(넓게 번지는 허물, 큰 허물) 불러주던 어진 조상 신도본향 한집님 조손들 모  
 심먹언 완(자손들 마음먹고 와서) 축원 드림시메(축원드리고 있으니) 복 줍서.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신(堂神)인 ‘하로산또’는 송당 본향당의 12번째 아들이  
 다. 또는 8번째 아들이라고도 한다. ‘하로산(하르산)’이란 신명에서 이 신이 한라산신계  
 (漢拏山神系) 신이며 산신일월 조상이므로 수렵과 목축의 신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새미하로산당에서 음력 1월 14일에 열리는 신과세제의 한 장면.

산신당에서 당굿을 할 때는 산신놀이를 한다.

현재 제주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굿이 전승되는 곳이 바로 새미하로산당이며, 음력 1월 14일에 신과세제, 7월 14일에 백중마불림제를 한다. 백중마불림제는 ‘앉은제’로 하는데, 심방이 무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제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새미하로산당의 당굿에는 여성 단골들만이 참여하는데, 오곡풍등과 육축번성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기원한다. 매인심방은 고군찬, 김윤수와 이정자(김윤수의 처), 양춘열로 이어지고 있다.

새미마을 주민 모두가 단골이라 할 수 있으며 본적을 이 마을에 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찾아온다. 그런가하면 삼양, 서회천, 와흘 출신이면서 동회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당제를 함께 지낸다. 이들은 동회천 당제를 지낸 후, 같은 제당 안에 위치한 자신의 출신지 궤에 가서 심방에게 문점을 하고 산을 받는다. 다시 말해 삼양에서 새미마을로 시집왔으면 삼양에서 가지 갈라 온 가물개 궤에 가서 따로 제물(祭物)을 바치고 문점(問占)을 해 산을 받는 것이다.

## 당굿의 준비

예전에는 당굿하러 가는 행진이 있었다. 회시니빌레에서 시작해 마을의 서쪽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 흑굿다까지 행진하고 당으로 갔는데, 1980년을 마지막으로 행진절차는 없어졌다.

당굿에 올릴 제물의 준비는 부녀회장이 맡는다. 제일 전에 미리 매킨심방에게 연락해 굿을 맡아달라고 약속을 받아놓고 장을 보아 저녁에 제물을 준비한다. 본향상과 액막잇상에 올릴 제물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

본향상 차림으로 생선 1마리, 과일 3종을 저마다 3개씩, 삶은계란 3개, 돌레떡 5~7개, 백지 1권, 술 1병, 메 1그릇, 나물 1접시를 준비한다. 상을 차릴 때 향을 피우고 양쪽에 촛대를 세운다. 예전에는 산신놀이를 하고 나면 수탉의 간을 떼어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간값'이라 하면서 천원씩 본향상 앞에 놓는다.

액막잇상 차림은 자그마한 상 위에 큰 양푼을 이중으로 놓는다. 밑의 양푼에는 보리쌀을 넣고, 그 위의 작은 양푼에는 쌀을 넣고 내광 자치 석자 세치, 빨강 파랑 노랑의 물색 자치 석자 세치, 백지 1권, 실 1줄, 돈 10만 원을 었는다.

그리고 각 가호마다 준비하는 제물상이 마련된다. 여기에는 메 1그릇, 생선 1마리, 콩나물, 과일 3종, 돌레떡 3개, 삶은계란 2~3개, 술 1병을 올리고 빵, 꽃감 등을 곁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팔이든 빵은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제비쌀 한홉, 제비로 돈 3만원 정도를 올린다.

굿하는 날에는 적어도 가호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시어머니가 못 오



본향상 차림. 당굿에 올릴 제물 준비는 부녀회장이 맡는다.



당곳을 치르기 위해 가가호호에서 준비해온 명단에는 가족의 이름과 나이가 적혀있다.

면 며느리가 대신 오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오기도 한다.

당곳이 열리는 날에는 부녀회장을 비롯하여 몇몇이 먼저 나와 제장을 정리하고, 입구 쪽에 본향상을 놓고 왼쪽에 액막잇상을 놓는다. 오전 8시 무렵이 되면 단골들이 서서히 모여들어 제단에 윗줄부터 차례로 진

설을 한다.

당곳은 당의 매킨심방 주도로 이루어진다. 제물을 진설해놓은 제단 앞에 매킨심방이 자리하며 소미는 제단 왼쪽에 나란히 앉아 북과 설쇠를 치고, 그 뒤로 단골들이 경건한 자세로 자리를 잡는다.

진설을 마치면 심방은 연물을 세 번 쳐서 삼천전제석궁의 신들에게 “지금부터 곶을 시작합니다.”라고 알린다. 심방이 창하는 내용에 따라 소미가 제단 위쪽에 넓적한 돌로 덮여 있는 껏문을 연다. 심방은 제단 앞에 앉아 단골들이 차린 제물을 신에게 아뢰는데, 제물을 넣은 차룽에는 가족의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는 종이가 놓여 있다.

부녀회장이 이것을 하나하나 심방에게 건네면 심방은 “아무개 집안에서 왔다.”는 사설을 하여 신에게 아뢰는 것이다. 참석한 단골 수보다 제물이 더 많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는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친족에게 제물비를 주고 당곳에 올릴 제물 마련을 부탁했기 때문이다.



새미하로산당은 남신이자 수렵과 목축의 신인 '하로산또'를 당신으로 모시고 있다. 당의 내력을 전하는 본풀이에 의하면 하로산또는 송당 본향당의 8번째 또는 12번째 아들이라고 한다.

## 당곳의 제차

열명(列名)이 끝나면 초감제로부터 당곳이 시작된다. 베포도업침, 날과 국 섬김, 마을연 유담음, 군문열림, 분부사뵐, 산받음, 주잔권잔, 새드림 순으로 진행된다.

'초감제'는 신칼과 요령을 들고 춤을 추고 사방에 삼배하며 신들을 청하는 제차(祭次)다. '베포도업침'은 우주의 질서와 천지개벽, 인간의 탄생을 알리는 제차이고, '날과 국 섬김'은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설명하는 것이다.



음력 7월 14일 열리는 당굿인 백중마불림제의 장면들. 가운데 사진에서 '액막이상'을 볼 수 있는데, 이중으로 놓인 양푼이 눈길을 끈다.

‘마을연유뒹뒹’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가가호호 편안하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연유로 굿을 하게 되었다고 아뢰는 것이다.

‘군문열림’은 신이 인간에 내려올 의사 여부를 점을 치고 확인하는 제차로, 신칼로 점을 쳐 삼시왕군문 괘(신칼의 날이 마주한 괘)가 나오면 손바닥을 꺾었다 폈다 하는 춤으로 답한다.

‘분부사뒹’은 신의 뜻을 심방의 입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신이 인간의 뜻을 들어준다는 내용이다. ‘산받음’은 신칼점과 신판점으로 신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다. ‘주잔권잔’은 신을 따라 온 잡신과 군병들에게 술을 대접하여 케우리는, 즉 고수레하는 제차다. ‘새드림’은 굿판을 깨끗하게 씻어 부정성을 없애는 의례로 소미가 정화수 사발을 들고 물을 뿌려 사(邪)를 쫓는다.

다음은 ‘본향뒹’으로 오리정신칭, 당본풀이, 우봉지주단, 본향드리, 정대우, 군웅놀림, 지장본풀이, 삼천군병지사뒹, 각산받음, 산신놀이, 도진의 순으로 진행된다.

‘오리정신칭’은 오리 밖까지 나가서 신을 모셔 들이는 것이고, ‘당본풀이’는 사냥을 하던 설촌조상이 좌정하게 된 내력을 창하는 것이다. ‘우봉지주단’은 당신을 따라 온 군졸들에게 술과 떡을 던져주며 당신이

당도했음을 묘사하는 제차다.

‘본향드리’에서는 심방이 팔에 천을 묶고 감상기를 활로, 신칼을 화살로 잡은 장수의 위용으로 당신이 굿판에 들이닥치는 대목을 보여준다.

‘정대우’는 심방이 신칼점으로 모든 신들이 들었음을 살피고, 신칼점을 치며 쌀을 케우려 좌정토록 하는 것이다. ‘군웅놀림’은 신을 좌정하게 한 후 신을 즐겁게 놀리는 곳으로, 풍류노래로써 신을 놀리며 신인동락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장본풀이’는 지장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본풀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사고무친한 지장아기씨가 기구한 운명을 딛고 법당에 공을 들여 새의 몸으로 태어난 내력을 이야기하는 의례다.

‘삼천군병지사뵈’은 난리에 죽어 떠도는 하위 잡신들을 대접하는 제차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각산받음’인데, 가가호호에서 참석한 단골들이 집안과 가족의 운세를 문점하는 차례이므로 어느 제차보다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어서 ‘산신놀이’가 행해진다. 사냥을 하며 살던 본향당신이 하던 생업활동을 놀이화한 놀이굿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도진’에 이르러 굿을 마무리하고 신을 돌려보내게 된다.



새미하로산당의 당곳에는 여성들만 참여한다. 새미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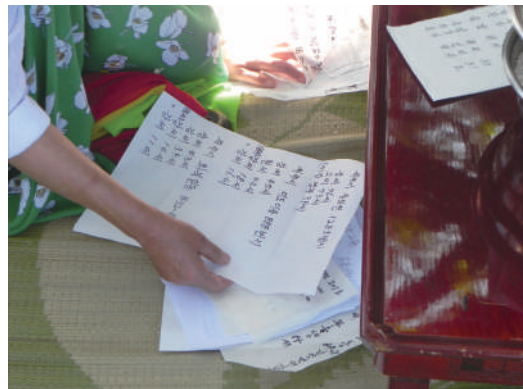


### 당신의 영험담

새미하로산당에 다니는 단골들은 이 당이 영험하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래서 모두들 제일마다 열심히 당을 찾는다고 한다. 당곳이 열릴 때도 그 믿음은 이어져 문점 결과에 따라 희비가 교차되기도 한다.

가족 이름이 적힌 종이를 심방에게 주면 심방은 이름과 나이를 토대로 쌀점을 치고 점괘를 알려준다. 가족 명단이 적힌 종이는 소중히 다루는데, 심방이 열명할 때는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절을 하고, 점을 치고 나면 입구 쪽에서 종이를 불사른다.

산 받을 때면 단골들이 심방의 점친 결과를 심각한 표정으로 듣다가 “야, 건강허덴 햄져.”, “우리 아들 내년엔 장가 가지켄 햄져.” 하면서



신목 뒤에는 신의 거주처인 궤가 있는데, 하로산 또의 궤뿐만 아니라 와흘과 상양 등 다른 마을신의 궤도 있다(상). 심방이 문점을 보고 있다(중). 가족의 이름과 나이가 적힌 가가호호의 명단들(하).



‘각산밭음’ 제차. 가가호호에서 참석한 단골들이 집안과 가족의 운세를 문점하는 차례이므로 어느 제차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한다. 아들이 올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겠다는 점괘가 나온 할머니는 어찌하면 될지를 되물으며 침울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심방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젊은 며느리가 점을 치고 난 쌀알을 자연스럽게 넘죽넘죽 받아먹는 모습에서도 당의 영험함을 믿는 마음을 읽어볼 수 있다.

이 당신인 하로산또와 석불이 있어 예부터 호열자도 들어오지 못했다며 당신을 ‘영험한 할아버지’라고 믿고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여전히 당굿을 이어오며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간직하게 된 셈일 것이다.

## 당제의 운영과 결산

이 마을의 마을제는 남성들의 석불제와 여성들의 당제로 나뉜다. 남자들은 석불제를 위해 12월 27일에서 29일 사이에 마을총회를 열어 제관을 뽑고 날짜를 정하며, 그날 저녁에는 여자들이 모여 당제를 위한 회의를 한다.

이 회의에서 그해 당제를 치렀던 내역을 보고하고, 다가올 해의 당제를 위해 호당 거출할 금액을 결정한다. 그해 모은 자금은 그해 행사에서 거의 쓰이기 때문에 회의에서 보고 사항은 간단하다. 굿과 제수용 수탉 비용, 본향상과 액맞잇상 차림 비용, 심방 식사비가 대부분이다. 굿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제비를 부담하지만, 비용이 모자라면 새미마을 거주민들만 추가로 더 거출하기도 한다. 타지에서 사는 단골들은 굿할 때가 아니면 만나기가 어려워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호당 백중제 때 3천원, 신과세제 때 5천원씩 받아서 당제의 비용으로 썼는데 2010년부터 마을회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부터 제주시에서 당 관리비가 5만원씩 나오고 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해 마을회에서 잡풀제거등 정비와 청소를 하고 있다.



당올레에서 바라본 당굿 장면.

## 산신놀이

새미마을에서 당굿이 열릴 때는 산신놀이가 행해진다. 당신인 하로산또가 한라산신계 신이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열리는 당굿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본향당신(本鄕堂神)이 생전에 하던 생업, 노동 등 생산활동을 놀이화한 놀이굿을 한다. 이 마을처럼 당신이 산신(山神)인 경우는 ‘산신놀이’, 당신이 산신(産神) 불도할망인 경우는 ‘서천꽃놀이’와 ‘불도맞이’, 해신(海神)이면 ‘요왕맞이’, 당신이 도깨비나 선왕신인 경우는 ‘영감놀이’, 토산에서와 같이 사신(蛇神)이면 ‘토산당신놀림’을 하여 신을 놀린다. 따라서 새미당에서는 당굿의 끄트머리에 ‘산신놀이’를 하는 것이다. 산신놀이는 ‘사냥놀이’, ‘사농놀이’라고도 한다. 사냥을 하며 살던 본향당신을 놀리는 굿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제주지역에는 새미마을 외에도 산신놀이를 하는 당이 있다. 송당계(松堂系) 당신의 아들신이 마을에 좌정한 와홀리 당굿, 금악계(今岳系) 당신의 장녀(長女) ‘저지허리궁전’ 딸이 좌정한 신평리 당굿에서도 산신놀이가 펼쳐진다.



산신놀이에 사냥감으로 쓰일 수닭. 산신놀이는 반농반목축의 중산간 마을 당굿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놀이굿으로 전승가치가 큰 문화유산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산신놀이는 반농·반목축의 중산간 마을 당굿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놀이굿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당굿의 막판에 산신놀이를 할 정도면, 제주지역에서는 비교적 원형을 제대로 전승하고 있는 당굿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의 산신놀이는 원래 수렵과 목축의 신인 ‘백중와살’이란 산신을 위해 벌이는 놀이굿이다. 대개 7월 백중(百中)에 행하는 본향굿에서 볼 수 있는데, 포수 두 명이 사냥감을 다투다가 화해하고 사냥감을 나누는 과정을 연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

는 것이다.

제주사람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한라산과 그 주변 산자락에서 사냥을 하며 생활을 영위해 왔다. 특히 중산간 마을에서는 근세까지 농경과 더불어 수렵 활동을 계속해 왔는데, 산신놀이는 특히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집안에서 사냥철을 앞두고 행하는 큰곳에서 연행된 놀이였다.

제주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산신놀이와 새미마을의 산신놀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산신놀이에 앞서 사냥총으로 쓰이는 막대기 두 개와 사냥감인 닭이 준비된다. 심방 둘이 포수 역할을 맡는데, 머리에 끈을 묶고 막대기에 줄을 매어 꾸민 총을 들어 사냥꾼으로 분장한다. 먼저 한 명이 제장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시늉을 하고 일어나 꿈 이야기를 한다. 사냥을 하면 수확이 많으리라는 내용이다. 서로 주고받는 대사의 내용에는 성적인 표현이 가득한데,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조들의 해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함께 제를 올린 뒤 사냥에 나선다. 한 사람이 먼저 닭을 끌고 제장 바깥으로 나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그 뒤를 쫓아다닌다. 사냥감인 닭을 쫓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제장 안으로 돌아와 총을 쏘는 시늉을 한다. 그리고는 서로 자기가 먼저 사냥감인 닭을 잡았다고 다투기 시작한다. 다툼 끝에 서로 화해를 하고 사냥감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으로 산신놀이는 마무리된다.

이 같은 산신놀이는 본향당곳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과 함께 연극적 형식을 통해 제주지역의 전통적 생활상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과 전승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 석불과 석불제

새미마을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또 다른 신앙물이 있다. 바로 제주시 유형문화유산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 석불(石佛)이 그것이다. ‘미륵불’이라고도 부른다. 석불단은 얼굴모양이 새겨진 5개의 석상과 3개의 자연석 등 8개의 석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300년 전쯤에 조성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불교의 불상이 아닌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미륵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석상들은 독특한 형상의 자연석에 이목구비의 윤곽을 간결하게 새겨 표현했을 뿐 나머지 세부는 모두 생략돼 있다. 돌의 결을 따라 새겨 넣은 민중적인 자연미가 돋보인다. 어떤 석상은 눈매가 이중 음각으로 새겨져 있기도 하고, 코가 아주 큰 석상, 동자의 얼굴이 느껴지는 석상, 자연스럽게 모자를 쓴 것 같은 석상도 있다. 자연 형상석을 이용해 부분적으로 얼굴을 새겼기에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데,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이 들게 한다.

표석에 석불의 신명(神名)을 ‘석불열위지신(石佛列位地神)’이라 한 데서 유가의 흔적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이곳에 치성을 드리면 영험이 있다고 하여 많은 이들이 기도처로 찾았다고 한다. 특히 무병·포태·득남의 효험이 있다고 전해온다.

석불단에 기자불공(祈子佛供)을 드리는 신도들이 많아서 화천사라는 절이 지어지게 되었다고도 한다. 기자치성은 주로 여성들이 행하는데, 새벽에 새미물을 길어다 정성껏 기도



### 회천동 석상(5기)

제주시 유형문화유산 제3호  
소재지: 제주시 회천동(화천사 대웅전 뒤)

회천동 화천사(華泉寺) 대웅전 뒤에 있는 높이 65cm 정도의 석상 5기가 모셔져 있는데 모양은 삼각을 이루면서 길쭉한 현무암 돌을 이용하여 얼굴형태를 자연스럽게 형상화한 것이다. 주로 윗부분에 굽은 음각선을 이용하여 눈이나 코, 입따위를 조각한 것으로 5기 모두 다른 형상을 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한 감정을 주고 있다. 이형상(李衡祥) 목사 재임당시 당오백 절오백을 불태워버려 이 석상만 남았다고 전하며, 마을의 특수한 신앙석으로 알려진 회천동 석상5기는 3백년 이전부터 매해 정월 첫 정일(丁日)날 제사를 봉행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석불열위지신(石佛列位之神)을 모시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제를 지내는데 제물로 육류(肉類)를 쓰지 않는 것이 특이하다.

불상이 아닌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미륵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새미마을 석상들. 독특한 형상을 한 자연석의 곁에 따라 새겨 넣은 민중적인 자연미가 돋보인다.



를 드리곤 한다.

석불제를 지내면 괴질을 막아주는 등 무병에도 효험이 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갑인년(1912년)에 말라리아의 일종인 호열자가 창궐하던 때에도 새미마을 주민들은 모두 무사했다고 한다.

새미마을에서는 해마다 이곳 석불단 앞에서 민간신앙과 불교적 성격 그리고 유교식 제의가 혼합된 마을제인 석불제를 지내고 있다.

새미마을에서는 무속신앙과 불교신앙이 강해 다른 계열의 공인종교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마을의 문화적 특성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겠다.

## 제주지역의 포제

새미마을 마을제의 특징을 살펴려면 먼저 제주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酬祭)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동회천 석불제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제는 제주도에서 유교식으로 치러지는 마을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삿제’, ‘거릿제’, ‘천제’, ‘산천제’라고도 한다. 포제는 마을주민들의 안녕과 오곡의 풍성을 기



원하기 위해 치러지는데, 대개의 경우 한 해에 두 차례, 음력 정월과 유월에 지낸다.

정월에 지내는 제사는 객신제(客神祭), 유월에 지내는 제사는 농포제(農酬祭)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조금 다르다. 객신제는 주로 그 마을 사람에게 천연두를 비롯한 모든 악신의 침입을 막아달라고 기원하는 제사이고, 농포제는 그 해의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인 것이다.

포제단(酬祭壇)은 제관들이 근신(謹愼) 함숙할 수 있는 건물까지 마련한 마을도 있지만, 대개 마을 동산에 제의처(祭儀處)를 마련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곳을 ‘포제단’ 또는 ‘포제동산’이라 부른다.

제는 몸을 청결히 하고 한밤중에 경건함 속에서 지낸다. 제관은 삼헌관(三獻官)과 집사·축관·전사관·집례 등 10여 명을 선정하며, 이들은 7일간 근신하고 있다가 제단으로 가서 제를 올리게 된다. 제물은 돼지·술·과일·포 등이고, 돼지는 한 마리 또는 두 마리를 잡아 올린다.

제사가 끝나면 그 마을 ‘돛당’(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는 신당)으로 돼지와 제물을 가지고 가서 당제(堂祭:本鄉祭)를 지낸 뒤에 음복하는 경우가 있다.

제신(祭神)은 ‘포신지위(酬神之位)’, ‘토지신위(土地之神位)’ 등 지방(紙榜)을 써



석불단 전경. 새미마을에서는 해마다 이곳 석불단 앞에서 민간신앙과 불교적 성격 그리고 유교식 제의가 혼합된 마을제인 석불제를 지내는데, 제물로 돼지고기를 쓰지 않는 특징이 있다.

붙인다. 신격은 생명·생업 등을 수호하는 신이지만, 유교식 의례여서 본풀이가 없고 축문만 있다.

## 새미마을 석불제

새미마을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치러지는 포제 대신 예로부터 정월 초정일(初丁日) 또는 초해일(初亥日)에 석불제를 지내왔다.

4·3사건 당시 마을주민이 모두 소개되어 마을이 텅 비어있을 때도 10여 명의 마을사람들이 올라와 제를 지낼 만큼, 단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석불제에는 제관 이외에는 아무도 참석할 수 없다. 그리고 제물은 돼지를 희생으로 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제의 형태는 유교식으로 진행되지만 생물의 희생을 삼가는 것으로 보아 불교적 색채가 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마을의 포제와 또 다른 특징은, 제를 지내기 전 석불 머리에 송낙(지의류의 한 종류인 송라를 우산 모양으로 엮어 만든 모자)을 씌운 뒤, 종이로 만든 띠를 매어 신상을 정결하게 치장한다는 점이다.

석불제를 올리기 위해 매년 12월 27일에서 29일 사이에 마을총회를 열어 초헌, 아헌, 종헌, 대축 각 1명과 집사 2명 등 모두 6명의 제관을 뽑는다. 제관은 건강하고 집안에 별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일도 결정하는데, 입춘이 지난 후 음력 1월 14일 전의 초정일(初丁日)이나 초해일(初亥日)을 제일로 잡는다.

예전에는 도가(都家)도 선정했었다. 도가는 제물 준비를 하는 집으로 자녀를 다 키워 여유가 있고, 집안에 특별한 일이 없는 가구여야 했다.

제관들은 3일 동안 도가에 살면서 몸을 정결히 하고 불경한 일을 멀리 했다. 정성을 들이는 기간에는 제관들은 물론 도가의 부인도 돼지고기와 술을 금했다. 3일째



새미마을에서 해마다 정월 초정일 또는 초해일에 치러지는 석불제의 장면들. 늦은 저녁인 술시에 시작된다.



되는 날 제관들은 각자의 집에 가서 향물로 목욕하고 제를 준비했다.

1996년부터는 마을회관에서 도가의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정된 제관들은 마을회관에서 3일 동안 합숙하며 정성을 들이고, 제물 준비와 제관들 식사는 부녀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관들이 합숙을 시작하는 날, 제장 입구에는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줄을 친다.



제관들이 정성을 들이는 동안에 주민들이 방문해 제주(祭酒)를 전하거나 회사금을 주기도 한다. 외지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한다.

제일로 잡힌 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떤 곳은 날씨에도 제를 거행한다. 제는 술시(戌時 : 오후 7시~9시)에 지낸다.

술시가 가까워오면 제관들과 부녀회 대표들이 준비한 제물들과 제기 등을 챙겨 제장으로 향한다. 그리고 제장 입구에 찢던 금줄을 걷어내고 들어가 제를 지낼 준비를 한다. 석



석물제 장면들. 초헌, 아헌, 조헌, 대축 각 1명과 집사 2명 등 총 6명의 제관이 집전한다.

상 머리에 송낙을 씌우고 허리에는 종이 띠를 매고, 진설을 시작한다. 진설 대상은 얼굴모양이 새겨진 5개의 석상과 3개의 자연석 등 8개의 석물이다. 이 8개의 석물은 어떤 신을 상징하는 걸까?

남자 어른들은 얼굴모양이 새겨진 5개의 석상은 각각 천신, 지신, 본향신, 영등신, 포신을 상징하고 3개의 자연석은 해신, 용왕신, 산신을 상징한다고 전한다.

여자 어른들은 얼굴모양이 새겨진 5개의 석상 가운데 석불은 가운데에 자리한 석상 하나이고, 넷은 동서남북 방위신이어서 5개의 석상은 오방지신을 상징하고, 3개의 자연석은 새미물신, 해신, 산신을 상징한다고 전한다.

이렇듯 새미마을에서 전해 내려온 정성의 대상은 하늘, 땅, 바다, 산, 동서남북, 본향당, 새미물에 이르기까지 지대했던 듯 하다.

진설하는 제물은 메 1그릇, 떡 2종(보시 시루떡, 돌레떡), 과일 5종(배, 사과, 귤, 밤, 대추 등), 채소 3종(콩나물, 미나리, 무채 등), 명태, 생선 등이다. 그 가운데 명태는 산신을 상징하는 석물 앞에만, 생선은 해신을 상징하는 석물 앞에만 진설한다. 제주는 소주와 음료수가 쓰인다.



헌관들의 독축 차례가 끝날 때마다 모두 함께 네 번씩 절을 올리는데, 한 번에 15초 이상 엎드린다. 그렇게 네 번씩 다섯 차례, 곧 모두 스무 번의 절을 올린다.

진설이 끝나면 제의가 시작된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차례로 잔을 올리고, 또 저마다 차례로 독축을 한다. 예전에는 한문으로 이루어진 축문을 읽었는데, 3년 전부터 한글로 풀어서 읽고 있다.

헌관들의 독축 차례가 끝날 때마다 모두 함께 절을 네 번씩 올리는데,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15초 이상 엎드린다. 그렇게 네 번씩 다섯 차례, 곧 모두 스무 번의 절을 올린다. 제의가 끝나면 축문 소지는 불살라지고, 석상에 씌웠던 송낙과 허리띠는 그대로 두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한다.



維歲次某年某月某日  
 初獻官 名  
 敬昭告于  
 寺堂之神 伏以於新明神司我閭閻瘳瘵至處  
 岩有像樹德流澤弭災致祥新正月初回  
 薰蒙神惠人遂業家安堵五穀豐登  
 首當蕃息庶時恆疫防遠境終歲無憂  
 報賽無數謹以醴齋香幣崇成庶羞  
 祇薦于神尚 饗

서기 0000년 음력 0월 0일 길일을 택일하여  
 초헌관 000 아헌관 000 종헌관 000  
 고하나이다.

고사석불 천신, 지신, 본향신, 영등신, 포신 열  
 위 전에 주민일동의 정성을 한데 모아 경건한 마음으  
 로 석불제를 봉행하여 배례하오니 온 마을의 무사안  
 녕과 행운이 가득하고 집집마다 무병장수 과수발전  
 오곡풍등 축산진흥 소원하는 꿈이 모두 이루어지도  
 록 하여 주시옵고 이 마을 출신으로 타지에 나가 있  
 는 자손까지 보살펴 주시옵기를 축원 드리오며 정  
 성으로 마련한 제수를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석불제 축문. 예전에는 한문축문을 읽었는데, 2000년부터는 한글축문을 읽고 있다. 제의가 끝  
 나면 축문소지는 불살라진다.

제사를 마치면 제관들은 바로 마을회관으로 돌아가 주민들과 함께 음복을 한다. 제사에  
 쓴 제복과 제기는 마을회관에 보관하는데, 부녀회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



‘절터왓’ 또는 ‘절왓’이라 일컬어지는 지경. 발이 조성돼있지만 지금도 자기조각들과 기와조각들을 찾아볼 수 있다.

## 절터왓과 화천사

새미물 동북쪽 50여m 지점 일대에는 현재 과수원이 조성돼 있지만 예로부터 ‘절터왓’ 혹은 ‘절왓’이라 일컬어지는 곳이다. 그 북쪽에는 ‘절동산’이라 불리는 동산도 있다. 옛 지명도 그렇거니와, 이 지역 곳곳에서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고려시대 자기편도 발견되었고, 조선시대 기와편과 자기편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오래 전부터 절이 들어섰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고려시대부터 사찰이 있었던 곳으로, 조선시대 이형상 목사 시절 폐사되자 마을주민들이 석불을 모시고 불법을 이었다고 한다.

이후 1912년 만덕사(萬德寺)라는 사찰이 창건되었다는데, 삼양동의 원당사와 통폐합되었고, 1968년 현재 위치에 한국불교 태고종 사찰인 화천사가 창건되었다. 다음은 ‘화천사 창건기’다.



화천사는 1968년 창건된 한국불교 태고종 사찰이다.

대저 이 사찰은 자고로 석가세존을 숭배해 오던 곳으로 과거 수백 년 전부터 이곳에 존재하였다. 조선 연산군 당시 제주목사에게 명령하여 소각한 후로 본동 인사들이 석불암을 창건하여 숭배하였다.

서기 1912년 임자년 봄에 마용기가 사찰을 창건하여 김보관·송재술·현갑생 등이 여러 해 동안 온 힘을 다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안타까워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하늘의 운세가 도래하여 충청도 출신 김운공이 이곳에 와 채근배·고원석·김승은·고정란·김창윤·백임생·이무생·허언·이진언·김보덕·김생울·김순이 등과 상의하여 초라하거나 사치스럽지 않게 사찰을 창건하였다.

신도 일동이 이러한 이야기를 나에게 기록하기를 청하였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이곳에서 나고 자랐으니 부끄러운 죄를 피하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적는다. 이후 현명한 이가 아름다운 글로 잘 고치기를 바라노라.

1973년 봄 주지 김운공

## 제주돌문화공원에서 만나는 새미마을 문화

제주돌문화공원 전시마당 제2코스의 야외전시공간에는 선사시대의 돌문화를 시작으로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돌문화, 제주의 신앙, 제주인들의 삶과 죽음,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 새미물과 동회천 석불 5기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제주돌문화공원은 석불과 새미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새미물

회천동 화천사라는 절 동쪽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새미물이 있다. 회천동 마을은 이 물을 생명수로 해서 생겼다고 한다.

새미물에서 ‘새미’는 샘(泉)을 의미하며 이곳 이 물은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만큼 유명하여 마을사람들의 식수로 활용되었다.



제주돌문화공원 내에 재현돼있는 새미물

### 회천동 석불

제주시 회천동 화천사 뒷뜰에는 높이 70~80cm 정도의 석불 5기가 모셔져 있다. 이 석불은 화천사가 창건되기 전부터 마을미륵으로 모셔졌으며, 이곳에서 치성을 드리면 득남의 효험이 있다하여 마을 사람들이 기자불공(祈子佛供)을 올렸던 곳이라고 한다. 자연석에 표현된 석불의 얼굴 형태는 모두 다르면서 자연스런 형상을 띠고 있다.



제주돌문화공원 내에 재현돼있는 석불5기.





## 허한 곳을 보하라, 답다니와 거옥대

새미마을에서는 방사용으로 세운 돌담을 ‘답다니’, 돌을 쌓은 위에 나뭇가지를 세운 것은 ‘거옥대’라고 불렀다. 마을의 동쪽에는 답다니가, 서남쪽에는 거옥대가 있었다. 동쪽은 허한 방향이어서, 서남쪽은 터진 방향이어서 세워졌는데, 어느 시기에 세웠는지는 전해지는 게 없다.

현재 거옥대는 사라져버렸지만 답다니는 아직 남아있다. 답다니 옆에는 거대한 소나무 고목이 서있다. 마을주민들은 수령이 100년은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소나무는 굵은 송악줄기가 휘어 감고 있다. 소나무가 죽을 것 같아 몇 해 전에 마을에서 송악줄기 밑동을 끊어버렸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얼키설키 자라고 있다. 소나무도 송악도 생명력이 참 대단해 보인다.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소나무와 답다니 사이에 향아리가 하나 놓여있었고, 마을여인들이 그 앞에서 기원을 하곤 했다고 한다.

새미마을에서 답다니와 거옥대를 세운 것은 화마의 기운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초가집을 짓고 살던 시절에는 한 해에 서너 건씩 화재가 발생하곤 했는데, 바람 때문에 줄줄이 불붙는 일이 예사였다. 그럴 때면 마을사람 모두 허벅에 물을 길어다 불을 끄느라 바빴다. 한때는 마을회관에 사이렌을 구비해놓고 불이 나는 등의 다급한 일이 생기면 울리곤 했다고 한다.

※ 새미마을에서 전해지는 옛지명의 위치. 마을복지회관 중심으로 표시했다.





## 옛 지명과 그 유래

### 1. 가메옥

가마솥처럼 생긴 굴부리가 패였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 이름이다.

### 2. 가메찻밭

큰 가마솥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소유였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가메’는 ‘가마솥(釜)’을, ‘찻’은 집(家)을 뜻한다. 집안에 큰 가마솥이 있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던 시절이 있었다.

### 3. 가시왓케

가시덤불이 많다는 데서 비롯된 지명 이름이다. ‘케’는 가시덤불과 돌무더기가 펼쳐진 곳을 말한다. 마을의 제일 남쪽에 자리한 광활한 곳이다. 제주에서 ‘탈’이라고 부르는 산딸기가 많아서 여름이면 그것을 따러 많이 다녔다.

### 4. 갈못

물이 자주 말라버린다는 ‘갈못’ 가까이에 있다는 데서 비롯된 지명 이름으로, 도련2동 경에 연이어져 있다.

### 5. 강못

여기서 ‘강’은 ‘아주 되다’는 뜻은 지니고 있는 접사(接辭)로, 곧 자주 말라 물이 없다는 데서 비롯된 물 이름이다.

### 6. 강벌테왓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의 밭이었는데, 그가 성깔이 ‘벌테’였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제주도에서는 성격이 차분하지 못하고 들떠서 돌아다니거나 어린아이처럼 장난을 잘 치

는 사람을 ‘벌테’라고 부른다. 강벌테 역시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힘도 세고 허풍도 세었다고 한다.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진다.

신촌에는 고벌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벌테가 라이벌이었다고 한다. 하루는 고벌테가 땀감을 하러 가다가 장난으로 큰 바위를 강벌테 밭 가운데 놓고 가버렸다. 강벌테가 밭을 갈러 갔다가 고벌테의 장난임을 알고 땅을 파내어 그 큰 바위를 밑에다 놓고 밭을 갈아 놓았다. 땀감 일을 마친 고벌테가 돌아가는 길에 보니 큰 바위가 없어지고 밭은 말끔하게 갈아져 있었다. 이상해서 강벌테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침에 가다 보니까 이 밭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어디 가수파?”

그러자 강벌테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그거? 왼손으로 들러다가 원당봉에 올라가서 관탈섬으로 던져버렸져.”

## 7. 강사공집터

사공을 지냈던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의 집이 있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 8. 거옥대왓

예전에 거옥대가 서 있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거옥대’는 방사(防邪)를 위해 돌무더기를 쌓아 나뭇가지를 꼽아놓은 것이다.

## 9. 곶베왓

지형이 마치 밭의 흙덩이를 부수는 농기구인 ‘곶베’, 곧 곶방메처럼 생겼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 10. 구시물

‘구시물’이 있다는 데서 비롯된 지경 이름이다. ‘구시’는 소나 말의 여물을 담는 그릇인 구유를 뜻한다.

### 11. 군지왓케

‘군지왓’이 있는 ‘케’라는 데서 비롯된 지경 이름이다. ‘군지’는 ‘군지(軍池)’, 곧 군과 연관된 연못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을주민도 있다. ‘왓’은 밭, ‘케’는 가시덩굴이 우거지고 돌무지가 많이 있는 곳을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 12. 굴왓

밭이 구렁졌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굴’은 구렁진 곳을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로, ‘굴형, 굴렁, 굴렁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 13. 궤약굴

굴이 있는 구렁진 곳이라는 데서 비롯된 지경 이름이다. ‘궤’는 위로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려지고 땅속으로 깊숙하게 패여 들어간 굴을, ‘굴’은 ‘구렁, 굴렁, 굴형, 굴렁이’라고도 말해지는 ‘구렁’을 뜻한다.

### 14. 귀도리동산

동산 이름이다. ‘귀도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 15. 꿩망동산

꿩을 사냥할 때 망을 보던 곳이라는 데서 비롯된 동산 이름이다.

### 16. 난생이왓

‘난생이’는 냉이를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난생이왓은 곧 냉이가 많이 난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 17. 남선밭

큰 나무가 서 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남선’은 ‘나무가 서 있는’을 줄인 말이다.

18. 녹이드로

‘녹이’, 곧 사슴이 나타난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드로’는 아주 자그마한 밭을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로, ‘드로갱이, 들랭이, 들헝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19. 닥낭숭이

닥나무 숲이었다는 데서 비롯된 지경 이름이다.

20. 담넨밭

담장을 원래보다 조금 밖으로 내어 쌓았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21. 답다니

방사용으로 세운 돌탑을 일컫는다.

22. 당밭

당(堂) 가까이에 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23. 대뒤

집터 뒤쪽이라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24. 돛박낭수덕

동백나무가 우거진 숲이라는 데서 비롯된 지경 이름이다. 와흘리와의 경계에 자리해 있다. ‘돛박낭’은 동백나무를, ‘수덕’은 큰 돌들이 엉기정기 쌓여 있고 잡초목이 우거진 곳을 말한다.

25. 동이왓

지형이 마치 동이처럼 생겼다는 데서 비롯된 지경 이름으로 조천읍 와흘리와의 경계에 있다.

## 26. 동산밭

지형이 높아 동산이 저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 27. 동카름밭

‘동카름’은 마을의 동쪽에 있는 마을을 일컫는다. 동카름밭은 동쪽 마을 가까이에 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 28. 뒷밭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새미마을에서 뒤쪽은 남쪽을 가리킨다.

## 29. 등계전

화천사 바로 아래 지경에 있는 밭 이름이다. ‘전’은 ‘밭’을 일컫는 ‘전(田)’이다. ‘등계’는 보리를 도정할 때 나오는 찌꺼기를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이 밭은 찰보리가 되는 좋은 토양을 지니고 있다.

## 30. 득통우영

지형이 마치 ‘득통’, 곧 닭이 들어앉아 알을 낳는 곳처럼 생겼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우영’은 울타리 안에 있는 텃밭을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 31. 마매기왓

밭 이름이다. ‘마매기’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 32. 마왓

마(薯)가 많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33. 마깨털동산

동산 이름이다. ‘마깨’는 방망이를, ‘털’은 산(山)과 평야가 구분되는 곳을 일컫는 말이다.

34. 매아진밭

매가 자주 날아와 앉았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매’는 ‘매(鷹)’를 일컫는 것이고 ‘아진’은 ‘아지다’ 곧 ‘앉다(坐)’에서 나온 제주토박이 말이다.

35. 머들좏인밭

‘머들’은 ‘돌무더기’를, ‘좏인’은 ‘좏은’을 뜻한다. 곧 돌무더기들이 빈번하게 놓여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36. 먼숭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데서 비롯된 지경 이름으로 ‘숭이’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37. 멩덕마루

와홀하고 회천 사이에 있는 마루 이름이다.

38. 못밭

‘못밭물’과 이웃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39. 문서리왓

밭 이름으로, ‘문서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40. 물갈린밭

‘갈린’은 ‘갈리다(分)’에서 나온 말이다. 밭이 높직한 데 있어 빗물이 나뉘어져 흘러내린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41. 물놀아라

말이 놀던 곳이라는 데서 비롯된 밭 방목지 이름이다.

42. 물죽은동산

말이 죽은 곳이라는 데서 비롯된 동산 이름이다. 와흘리와외의 경계에 자리해 있다.

43. 배음드르

배의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아주 작은 밭 이름이다.

44. 버들이못

버드나무가 있는 못(池)이 있다는 데서 비롯된 지경 이름이다.

45. 버른드르

동회천과 서회천 마을 경계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드르’는 ‘들’을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버른’은 둘로 나눈다는 뜻을 지닌 제주토박이 말 ‘버르다’를 일컫는 것으로 ‘버른드르’는 두 마을을 가르는 들이라는 데서 비롯됐다.

46. 버으내드르

마을 서쪽 지경으로 ‘버으내’라고 부르는 하천 옆 들판을 일컫는다.

47. 벗깁이왓

‘벗깁이’는 ‘빋깁이’의 음(音)이 변한 것으로 비탈을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곧 지형이 비탈졌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이 밭은 서쪽으로 경사가 저있다.

48. 베염드로

‘베염’ 곧 뱀이 많이 나타나는 아주 작은 밭이라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 49. 벨진밭

‘벨진’은 별(星)이 진(落) 곧 ‘별이 떨어진’이라는 뜻이다. 제주도민요 사설에는 ‘기름진 밭’이라는 의미로 가끔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밭의 흙은 기름지지 않다. 말 그대로 별뚱별이 떨어졌다는 데서 비롯된 이름인 것이다.

## 50. 벙디왓

‘벙디’는 널따란 벌판인 평대(坪垓)를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벙뒤’라고도 말해진다. ‘벙디왓’은 평평하고 널따랗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 51. 부게우영

부씨 성을 가진 사람의 집 텃밭이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 52. 불망터

밭 이름인데, 평평하고 넓은 곳이다. 왜 ‘불망’이라고 하는지는 확실히 않다. 제주도에서는 불붙고 있는 나무가 아주 타서 숯불과 같이 벌겍게 된 것을 ‘불망골’ 또는 ‘불망골’이라고 한다. 이 밭 이름이 이와 관련이 있다면 숯을 구웠던 터에서 비롯된 이름일 수도 있다.

## 53. 불미동산

예전에 ‘불미터’, 곧 대장간이 있었다는 데서 비롯된 동산 이름이다.

## 54. 사농동산

‘사농’은 ‘사냥’을 일컫는 것으로, 사냥할 때에 망을 본다는 데서 비롯된 동산 이름이다. 새미마을사람들이 사냥을 나가는 첫 번째 높은 동산이었다고 한다.

## 55. 사장밭

‘사장(射場)’, 곧 활을 쏘던 곳이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새미마을에는 옛날 이

곳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지 않으면 무관시험에 붙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56. 산물낭우영

‘산물낭’ 곧 산골나무가 있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 57. 상장믄르

‘상장’은 한자어 ‘상장(上長)’, ‘믄르’는 마루, 곧 등성이를 일컫는 말이다. 위쪽에 자리해서 옷상장믄르, 아래쪽에 자리한 알상장믄르가 있다.

#### 58. 서카름앞왓

‘서카름’은 마을의 서쪽에 있는 마을을 일컫는다. ‘서카름앞왓’은 서쪽 마을을 앞에 두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 59. 석구왓

바위굴이 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구’는 ‘굴’에서 ‘ㄱ’이 탈락되어 이루어진 말이다. 석구왓에는 굴이 3개 있다.

#### 60. 선군지왓

서쪽에 있는 ‘군지왓’이라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불망터 근처에 있다.

#### 61. 선택이동산

착한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동산 이름이다.

#### 62. 선믄루왓

서쪽에 등성이가 저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새미마을에 있는 사찰인 화천사를 돌아 하천 ‘종인내’로 가는 길의 아래쪽으로 도련 2동과의 경계가 된다.

### 63. 선반밭

지형이 마치 선반처럼 생겼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 64. 선반질

선반처럼 곧게 뻗었다는 뜻을 지닌 길 이름이다. ‘질’은 ‘길’을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이 길은 조선시대부터 나있었던 길이었다. 위쪽에 있는 길은 ‘웃선밭질’, 아래쪽에 있는 길은 ‘알선반질’이라 불렀다.

### 65. 선반케

지형이 선반처럼 생겼다는 데서 비롯된 지경 이름이다. ‘케’는 가시덤불과 돌무더기가 많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 66. 새구릉밭

새로이 만들어진 구릉진 곳이라는 데서 비롯된 지경 이름이다.

### 67. 새샘미

새로운 샘(泉)이 있다는 데서 비롯된 지경 이름이다.

### 68. 새미물

‘새미’는 샘(泉)을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세미’라고도 한다. 새미물은 새미마을을 이루게 한 샘물로 ‘새미승물, 새미수월물’이라고도 한다. ‘승’과 ‘수월’은 ‘숲’을 뜻하는 말이다. 새미수월은 ‘역적수월’이라고도 부르는 새미마을의 숲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69. 선달밭

선달을 지냈던 사람의 소유였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 70. 솔챙이왓

큰 소나무가 있는 지경이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옛날 이곳에 몇몇 가구가 있었는데, 물통이 있어 그 물을 먹으며 살았었다고 전해진다. 근처에 골충이 된 오랜 무덤들이 있었다고 한다.

#### 71. 송계집터

예전에 송씨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집 자리였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 72. 술집지터

술을 파는 집이 있었다는 데서 비롯된 지경이름이다.

#### 73. 윈드기동산

동산 이름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알윈드기동산’과 위쪽에 위치한 ‘웃윈드기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 ‘윈드기’라 부르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74. 포지밭

활을 쏘아 맞추는 과녁이 있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 75. 안새통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많이 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 76. 연자벵디

지경 이름이다. ‘연자’는 ‘연자방아’를, ‘벵디’는 평평하고 널따란 벌판을 뜻한다.

#### 77. 우력대가리

단단한 바위가 많다는 데서 비롯된 지경 이름이다.

## 78. 자구남통

‘자구남’은 ‘자귀남’이라고도 말해지는데, 자귀나무를 일컫는 것이다. 곧 자귀나무가 있고, 물이 잘 고이는 곳이라는 비릇된 지경 이름으로 조천읍 와흘리와와 경계가 된다.

## 79. 자굴왓

‘자굴’ 곧 차풀이 많다는 데서 비릇된 지경 이름이다.

## 80. 자굴왓케

차풀이 많다는 데서 비릇된 지경 이름이다. 와흘리와와 경계에 자리해 있다. ‘자굴’은 ‘자굴’이라고도 하는데, 자귀풀 또는 차풀을, ‘케’는 가시덤불과 돌무더기가 넓게 펼쳐진 곳을 말한다.

## 81. 장통이왓

비가 조금만 내려도 ‘장통’에 물이 고이듯 물이 잘 낀다는 데서 비릇된 밭 이름이다. 제주도에서는 움푹 파여 비가 내리면 물이 잘 고이는 밭을 ‘장통밭’이라 부른다.

## 82. 절동산

사찰이 있었다는 데서 비릇된 동산 이름이다. 마을에서는 고려시대 때부터 절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마차가 있던 시절, 동산이 높아 마차를 끌고 오를 때 힘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 83. 재필이우영

‘재필’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의 집 텃밭이었다는 데서 비릇된 밭 이름이다.

## 84. 종인넛밭

‘종인내’ 가까이에 이웃하고 있다는 데서 비릇된 밭 이름이다. 종인내는 새미마을과 와흘리의 경계가 되는 하천이다.

### 85. 주얼왓

광활하게 펼쳐진 지경 이름이다. 동쪽에 '동주얼왓', 서쪽에 '서주얼왓'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얼'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 86. 진사늘동산

길게 뻗어 있다는 데서 비롯된 동산 이름이다. '진'은 '길다'의 뜻이나, '사늘'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 87. 진사리왓

밭 이름이다. 왜 '진사리'라는 이름이 붙은 지는 확실치 않다. '진'은 길다는 뜻을, '사리'는 새끼 따위를 사려감은 멍치를 뜻하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그런 모양의 밭을 뜻하는 것이라면 '기다란 새끼를 사려감은 것처럼 생긴 밭'이라는 데서 비롯된 이름일 듯도 하다.

### 88. 짐폐기물

목장지대에 있는 물 이름이다. 물이 항상 질퍽하게 고여 있는 곳으로 펴이 많았다.

### 89. 짐폐기왓

물이 질퍽하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아래쪽에 있다 해서 '알짐폐기왓'과 위쪽에 있다 해서 '웃짐폐기왓'이 있는데, 두 밭의 사이는 50m 정도 떨어져 있다.

### 90. 지새터

여기서의 '새'는 '사이'를 뜻한다. 예전에 집이 있던 터의 사이에 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 91. 채칩골목

채씨 일가 6가구가 모여 사는 골목을 일컫는다.

92. 초간물

폭낭도 바로 옆에 있었던 물 이름이다. 폭낭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마시곤 했다고 한다.

93. 층밭

층계가 저 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94. 촌낭동산

‘촌낭’은 참나무를 일컫는 것으로, 곧 참나무가 많았다는 데서 비롯된 동산 이름이다.

95. 큰동산왓

큰 동산이 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96. 펜안밭

펜안하다, 곧 평평하다는 데서 비롯된 지경 이름이다.

97. 폭낭도

조선시대 국영목장을 10소장 체제로 운영했을 때 제3소장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팽나무가 서있는 입구였다는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제주도에서는 팽나무를 ‘폭낭’이라고 부른다.

98. 향벌른동산

향아리를 깨트렸다는 데서 비롯된 지경 이름이다.

99. 황구물통

‘황구(黃狗)’가 지나가다가 먹었다는 데서 비롯된 물 이름이다.

100. 황구물동산

‘황구물’이 있다는 데서 비롯된 동산 이름이다.

101. 희미니굴

‘희민’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이 소유했던 밭으로 ‘굴’이 있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이다.

102. 희시니빌레

‘희신’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이 소유했었던 빌레였다는 데서 비롯된 지경 이름이다. ‘빌레’란 넓적하고 평평한 바위가 지면에 드러나거나 살짝 묻혀있는 땅을 일컫는데, 이곳은 동산을 이루고 있다. 마을 북쪽에 자리해 있는데, 옛날에 국상을 당하면 북향 4배를 했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103. 흰비석세운밭, 흰빛돌왕

하얀 빛깔의 돌로 만든 비석을 세웠다는 데서 비롯된 밭 이름들이다. 두 밭은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104. 흑굿디

초가집을 지을 때 흙질에 필요한 흙을 파내고 치대던 터를 이르는 지경 이름이다.

## 옛날 옛적에

새미마을 입구에는 오래 된 팽나무가 한 그루 서있다. 이 나무 아래는 집집마다 소를 키우던 시절 마을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던 장소였다. 아침 일찍 저마다 자기네 집 소를 몰아 이 나무 아래로 모여들면, 그날 소 당번 두 사람이 그 소들을 다 이끌고 풀을 먹이러 목장지대로 떠난다. 그 뒤 나무 아래는 이야기꽃이 만발했다. 마을주민들은 그 시절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한다.

“모여서 소위 마을뉴스를 하는 거라. ‘누구네 아이는 막 착하고, 누구네 아이는 말을 아끼는 거 닮아.’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지.”

“할아버지들은 ‘이 마을은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기우다, 아니우다’ 하면서도 ‘경해수과’ 해가면서 듣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두서너 시간쯤 놀다가 저마다 집에 가서 아침밥 먹고 밭에 가는 것이지.”

마을사람들에게 전해진 옛 이야기들 속에는 시대의 상황, 마을의 역사와 문화, 마을사람들의 삶과 생활 등이 담겨져 있다. 어떤 이야기에는 아픔이 녹아있어 애잔함을 느끼게 하고, 어떤 이야기에는 해학과 풍자가 깃들어있어 슬며시 미소 짓게 한다. 새미마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리했다.

## 새미수월이 역적수월이 된 까닭

‘수월’은 ‘숲’을 일컫는 제주도박이 말이다. 새미물 뒤에 있는 숲이 새미수월이 역적수월이 된 것은 조선시대 초기의 일이다. 어릴 때는 옛날 어른들이 역적수월 얘기를 해도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나중에 역적이 숨어있는 숲이라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역적’은 나쁘게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옛날 어른들 얘기로는 우리 마을에는 고려시대부터 새미수월 근처에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옛날에 제주성의 동문 바깥 이쪽에는 토호들이 살았는데, 새미수월 근처에 살던 사람은 홍좌수, 현반수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좌수가 됐는지 반수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뭔가 ‘직함’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조선이 아니고 고려백성이다’ 해 가지고, 진상품을 뺏었다고 했다. 봉개에다 둔을 치고 남쪽에서 오는 진상품을 빼앗고, 신촌에다 둔을 치고 동쪽에서 오는 진상품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조선 입장에서는 역적질인 셈이다.

본부가 새미수월이었기 때문에 역적수월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역적수월 근처에 규모는 작지만 내외성이 있었다고 한다. 1970년대쯤까지만 해도 이중으로 쌓여진 돌담이 있었는데, 그 흔적이었던 거 같다.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아, 역적이 고려충신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엔 관군에게 토벌돼서 봉개에 있던 둔도 불타버리고, 신촌에 있던 것도 불타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못이 파인 것이다.

옛날에는 역적이 주둔했던 곳에는 못을 파버리는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역못’이었는데, 발음이 어렵다보니 ‘연못’으로 된 것 같다. 봉개하고 신촌에 그 연못들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 “이 동네 쇠 나기 전에 사람이 살았져”

예전부터 마을 어른들이 “이 동네 쇠 나기 전에 사람이 살았져”하는 이야기를 했었다. 쇠는 철이다. 그러니까 철기시대 이전인 석기시대에 사람이 살았었다는 것이다.

중산간도로 뺏으면서 집이 뜯겨버렸는데, 예전에 그 집에 살던 어른이 근처 밭에 나갔다가 발견한 석기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 이거 칼 대신 쓴 거 아니가? 석기시대에는 이게 쇠라게.” 그랬던 적이 있었다. 그 옛날에 사람이 살았으니 그 흔적이 남았던 것이다.

그 다음 사람이 제일 먼저 살았던 곳은 우리가 볼 때는 새미물 주변인데, 동네 범위가 지

금보다 상당히 컸던 듯하다. 그 쪽에 가면 아직도 기와조각들이 많은데, 거기가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흔적이다.

‘기저터’라고 하는 지명도 남아있다. 기와집을 지었던 터라는 말이다. 그 양쪽에 현 좌수, 흥반수가 기와집을 짓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기와집도 옛날 그 정도면 세력이 만만치 않은 집들이니까, 신촌이고 삼양이고 다 호령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랬는데 역적이라고 해서 관군들이 없애버리니까 농사짓던 다른 사람들은 조금 아래 주변으로 내려간 것이다. 그곳에는 올망졸망한 집터들이 남아있다. 지명도 남아있는데, ‘송계집터’는 송씨네 집터라는 말이다. 밭 하나 건너면 조그맣게 ‘오씨집터’라고 있다. 그건 오씨가 살았던 집터라는 것이다. 또 ‘앞집집터’라고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있었던 집터다 그런 뜻이다. 그렇게 아랫동네가 생겨났는데, 조선 초기쯤인 것 같다. 그 후로 조금 위에도 사람들이 살면서 윗동네가 생겨났다.

그런데 아랫동네는 아픈 사람도 많이 나고, 요망지지를 앓는데, 윗동네 사람들은 조금 요망지고 해서 아랫동네가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동네가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와버린 것이다. 그러니 지금 위치는 조선 중기쯤에 형성된 새 동네인 셈이다.

옛날동네는 새미수울 쪽이고, 그 다음에 역적사건으로 동네가 파괴돼버렸는데, 그래도 새미물에서 너무 멀어지면 못사니까 조금 아래에 조막조막 살다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 자리에 마을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다.

### 골충이 된 방묘들이 꽤 있었는데...

고려시대부터 마을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마을 주변에 골충들이 많았는데, 방묘들이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성한 방묘들이 몇 개 있었는데, 다 훼손돼버리고 지금은 거의 없다. 큰 소낭밭에는 그 흔적이 좀 남아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1980년대에 제주대학교 박물관 연구원이 조사하러 와서 같이 다녔던 적이 있다. 옛날에는 묘가 있으면 몇 밭자국 가면 다시 그런 것이 있는 게 공식이었던 모양이다. 묘 근처로

몇 발자국 가면 또 묘가 있을 거라고 해서 걸어가다 보니 정말로 그 흔적이 있고 그랬다. 지금은 다 그냥 짝 정리되어버렸고, 큰 길 뺏아버리고 하니까 다 없어졌다. 그 방묘들은 후손이 없으니까 골충이 되고 결국 없어져버린 것이다.

## 호열자 막아준 백발노인

갑인년 1912년경인데 당시 제주도 전체에 ‘호열자’라고 해서, 요새말로 하면 말라리아 병이 유행했었다. 인명피해가 많았다. 당시 우리 마을은 ‘숫막’이라고 해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마다 막을 지어놓고 3~5명씩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었다.

우리 마을하고 와흘의 경계지경에 못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숫막이 있었다. 순시를 돌던 사람이 한 12시쯤 되니까 그 숫막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병거지를 쓰고 좀 추하게 생긴 남자가 동쪽으로 해서 우리 마을 쪽으로 오고 있더라. 꿈을 꾸는 것이다. 마을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꿈결에서도 다툼이 생겼다. 못 들어온다, 들어가겠다, 실랑이를 벌인 것이다. 그러다가 그 병거지 쓴 사람이 마을로 막 들어서는데, 백발이 허영고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쓰윽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당장 되돌아가지 않으면 혼쫓을 내겠다!”며 호통을 쳤다. 그러니까 병거지 쓴 남자가 그냥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이다.

참 이상한 꿈을 꿨구나 싶어서 마을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고, 그 말이 퍼졌다. 그 해에 전도적으로 호열자가 돌아서 거의 모든 마을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우리 마을만은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

## 힘센 대식가 김진선

예전에 김진선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힘이 장사였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발도 컸다. 특히 발이 워낙 커서 고무신이 맞는 게 없어 자신이 직접 초신만 삼아가지고 신었었다.

이 사람이 산에 가서 숲을 구워가지고 팔면서 살다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가게 됐다.

일본에서 철공소에 다니게 됐는데, 하루는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철공소 앞 도로를 지나 가다가 바퀴 한 쪽이 고랑에 빠져버렸다. 트럭운전수가 철공소 사장한테 부탁해서 공장 사람들이 다 동원됐다. 그리고 모두 트럭에 붙어서 이리저리 애를 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고민을 하니까 김진선 그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며 나섰다. 그리고 어쨌죽지로 웃꽃 드니, 트럭바퀴가 고랑에서 그냥 나와 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철공소 사장이 그만 겁을 먹어버렸다. 이런 사람 놔뒀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차비를 주면서 “제발 돌아가줍써” 그랬다는 것이다.

김진선은 또 직장을 구하러 다른 공장에 갔는데, “월급을 얼마나 주면하겠냐?” 하니까 “월급은 필요 없고 먹여만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 공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며칠 못 버텼다고 한다. 몇 사람 먹을 분량을 한 번에 다 먹어버리니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 남의 마을 들판을...

옛날에는 마을마다 들판이 마을 가운데에 한두 개씩 다 있었다. 우리 마을 사람이 하루는 어디를 다녀오다가 어떤 마을을 거치게 되었다. 걸어 다니던 시절이라 좀 쉬었다 가려고 돌 위에 앉았는데, 마침 그 돌이 그 마을 들판이었다. 그 마을 청년들이 그것을 보니까 열불이 났다.

“남의 동네 와서 들판 위에 건방지게 앉은 걸 보니 기운 좀 쓰는 모양인데, 앉은 값으로 당신 그거 한 번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우리 마을사람이 그 들판을 들어서 밭으로 훑 던져버렸다. 그 사람은 힘이 장사였던 것이다. 밭으로 던져진 들판을 제 자리에 갖다놔야 하는데, 그 마을사람들 중에는 그걸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어쩔 것인가?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들러다 봐 주십시오.” 사정을 하니 우리 마을 사람이 다시 또 우쭐 들어다가 제 자리에 놔주고 왔다고 한다.

예전에 우리 마을에 김대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힘이 장사였다. 1961년에 8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그 분 젊은 시절의 일화다.

하루는 와흘2리를 넘어오다가 그 마을 들판에 앉아서 쉬었다고 한다. 와흘2리에는 들판이 마을 언뫼 옆에 놓여있었다. 그 동네 청년들이 “당신, 그 돌이 어떤 돌인데 거기에 앉아 있는가?” 그러면서 돌을 들어보라고, 못 들으면 혼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들판을 들어서 언뫼으로 던져 버렸다.

상황이 역전돼 버렸다. 그 마을에는 그 돌을 들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 마을사람들이 막걸리랑 고기를 차려다가 대접하면서 들판을 도로 제 자리에 갖다 놓아달라고 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언뫼에 들어가서 그 돌을 들어다가 다시 제자리에 놔주고 왔다고 한다.

### 귀신대가 나타나면...

‘귀신대’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것은 사람보다 더 높게 위로 막 올라서 하늘까지 올라간다. 지금은 전깃불이 많아서 귀신이 나대질 못하는데, 전깃불 없던 옛날에는 밤이 깊어 가면 막 어둡고 침침해서 그런 게 나왔다.

밤이 캄캄하게 깊은 시간에 다니다보면 주변에 귀신대가 있다는 예감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잇몸을 손으로 째 쥘어서 피가 나오면 그걸 ‘움움’ 해가지고 귀신대한테 싸악 뺨으면, 그것이 와썹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서 달아나 버린다고 한다.

귀신대 보고 난 다음에 아픈 사람도 있었다. 사람이 직성이 세면 그런 게 많이 다녀도 어떻게 안 되는데, 직성이 여린 사람은 피해를 보는 것이다.

### 산이무덤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전설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산이무덤이라는 게 있었다고 한다.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살면 거기를 들어가는 것이다.

소나무를 자르면 송진이 나오는데, 그것을 ‘솔각’이라고 한다. 솔각을 해다가 불을 살라 놓으면 기름이 바글바글 나온다. 전깃불 없을 때에는 그걸로 불을 쪼었다.

산이무덤 속에 사람을 들여놓고, 솔각기름 길어놓은 대바지(어린아이들이 지는 조그만 허벅)랑 먹을 거랑 물을 넣어주고 나서, 산이무덤에는 조그만 구멍만 남겨놓았다고 한다.

산이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은 “구멍에서 연기가 나면 산 줄 알고, 연기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알라.” 고 했다. 그래서 연기가 나지 않으면 구멍을 메꾸어버렸다고 한다.

## 고려장

옛날에 하도 먹을게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늙은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먼데 가서 버려두고 오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늙어서 아들에게 지게에 실리면 ‘이젠 날 버리러 가려고 하는구나.’하는 것이다.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나서는데, 아들의 어린 아들이 쫓아갔다. 이제 저 먼데까지 가서 풀밭 위에다 늙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돌아오는데, 어린 아들이 빈 지게를 지고 제 아버지 뒤를 따라왔다.

“그 지게 저리 던져 버려버려라.”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너, 그 지게 가져다 뭐하려고 그러냐?”

“이담에 아버지도 늙으면 이 지게에 지어다가 여기 와서 던져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리. 내가 아버지를 도로 업고 가야겠다.”

## 곤밥 할망

우리 마을에 살던 어떤 노부부 이야기다.

하르방은 엄청 부지런하고 알뜰한데, 할망은 조금 게으르고 욕심이 많았다. 하르방이 어디 고지에 가거나 밭이나 목장에 일하러 가버리고 나면 할망이 자기만 맛있는 것을 해서

계속 먹었던 모양이다.

옛날에는 맛있는 거라고 해봐야, 곤밥이었다. 제주도에는 쌀이 귀해서 곤쌀이라고 하고, 쌀밥을 곤밥이라고 했다.

밥상에 곤밥이 오르지는 않는데, 곤쌀은 자꾸 없어져가니까 하르방이 이상하다 했지만 할망은 시치미를 뚝 뚝 떴다.

하르방이 하루는 “나 고지 감서” 해놓고는 가는 척하다가 우리 마을이 다 보이는 동산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하르방 집에서 연기가 풍풍 풍 나는 게 아닌가? ‘웁거니, 이거 이제랑 집에 강 봐야켜’ 해서 가보니, 할망이 곤밥 차려놓고 혼자만 먹고 있었다고 한다. 딱 걸린 것이다.

## 밭담 하르방

우리 마을 하르방 하나가 젊을 때 이야기다. 결혼하려고 저 남군에 가서 새각시를 데리고 마을로 들어오면서 보니까 밭에 담들이 무너져 있었다. 그래서 “아, 이거 밭담 무너졌네?” 하면서 밭담을 계속 다우면서 갔다고 한다. 새각시는 흐뭇한 얼굴로 신랑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 새각시는 그 밭들이 다 신랑네 땅인 줄 알고 마음이 풍족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동안 살다 봐도 남편이 그 밭에는 통 가지를 앓았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저번에 밭담다운 데는 어땠 할 겨우까, 그 밭에는 안 감수과?” 물어보았다. 남편은 “거, 뭐 남의 밭에를 왜 가나?” 할 수밖에. 아내는 그때야 남의 밭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

## 방귀 때문에 놓친 고기?

조천하고 신촌 사이에 대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낚시하러 많이 가는 곳이다. 예전에 우리 마을사람이 그곳으로 낚시를 갔을 때의 일이다.

다른 사람 낚시대에서는 소식도 없는데, 이 사람 것에 커다란 고기가 물렸다. 한 삼사십 분 동안 공을 들여서 그 고기를 낚아 올렸다.

제주에서는 미끼를 ‘니깍’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대나무로 만든 차롱에다가 니깍을 담아서 다녔다. 이 사람이 낚은 고기를 니깍차롱에다가 착 놓았는데, 어찌나 큰 녀석인지 다 안 들어가고 걸쳐졌다. 아, 그런데 이놈의 고기가 아가미를 벌럭벌럭하면서 몸통을 차롱에 착착 부딪치며 몸부림을 쳤다.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고기를 낚으려고 낚시대에 니깍을 꿰어서 바닷물에 담구고 앉았는데, 잡아놓은 고기에만 신경이 쓰여서 눈길이 자꾸 차롱에만 갔다. 그런데 그 옆에는 초등학교 일이 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고기를 낚는다고 앉아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보리밥을 먹던 시절이었다. 이 어린아이가 보리밥을 많이 먹었던 것인지 방귀를 그냥 사정없이 크게 뀌어버렸다. 아, 그러니까 이 고기가 놀래가지고 파닥파닥하다가 니깍차롱 채 바닷물로 들어가 버렸다.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이한테 “야, 네 놈이 방귀 뀌어버리니까, 고기가 놀라서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고기도 방귀 소리 알아듣습니까?” 그러더라. 근처에서 고기 낚던 사람들은 막 웃고, 무지하게 기분은 나쁜데 화도 못 내고, “아, 왜 하필 그때 방귀를 뀌어가지고 고기를 놀라게 해버렸냐” 말이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 이런 부부, 저런 부부

어느 집 남자주인은 식사 후에 숟가락 놓는 것으로 기분을 표현했다고 한다. 밥상 위에 숟가락을 조용히 예쁘게 정리해놓으면 반찬 맛이 좋아서 잘 먹었다는 표시고, 반찬이 맛이 없으면 달그락 큰소리 나도록 내려놓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걸 부인이 알도록 했다는 것이다.

어느 집은 부부 싸움할 때마다 막 몸싸움을 하곤 했는데, 부인이 남편의 고향을 포착하는 일이 허다했다. 어느 날 또 부부 싸움이 시작돼서 몸싸움을 해가니까 마을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이 부부가 한창 싸우다가 부인이 또 남편의 고향을 포착했는데, “아지망!! 나 것이라, 나 것이라!” 하는 소리가 났다. 다른 집 남자의 고향을 남편의 고향으로 잘못 알아서 포착해버린 것이다.

## 동문 밖 최고 부자

예전에 새미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었다. 그는 새미마을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시의 동문 밖에서 최고의 부자로 꼽혔다. 특히 땅을 어찌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그 자신조차 다 모를 지경이었다. 콩 농사를 많이 했는데, 수확할 때가 되면 아차 농치는 밭이 꼭 있었다고 한다. 자신은 수확을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어느 지경 밭의 콩 수확은 다 끝냈느냐”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야 가서 수확을 하곤 했다고 한다.



## 새미마을에서 전해지는 민요

### 땃뵤리는 소리

얼얼어려렷렷허어  
가마귀가 몯사 검은들

으르르하여  
마음조차 검느냐~ 허  
어허어허~얼 하랑

요망지덜아 허~ 어려려렷렷렷  
앞발간디 뒷발가평  
어~렷렷려허

신나게 말앙 골로로 걷고 걸으랑  
어~ 얼화랑  
어려어려어려 어허~ 어어호 로로로  
신나게 말앙 어서어서 볼려지라  
잘 걸으라 어호 어려려려 어월하랑

발에 좁씨 등 가벼운 씨앗을 뿌린 다음 말뚝을 몰아 밟게 하는 것을 '린다'고 했다. '땃리는 소리'는 이때 부르는 노동요다. <사진출처:《제주100년》/제주도/홍정표 사진,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수놓음으로 김을 매는 여인들. 아웨기 혹은 사데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사진출처:《제주100년》/제주도/홍정표 사진,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 아웨기 1 (밭 매는 노래의 한 가지)

어야도아 방에로구나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검질짓고 골너른밭디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우리나역군 다지쳐간다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선소리랑 곳이나망정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후소리랑 조직조직 받아주소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어긴여랑 방에로구나

## 아웨이 2

어긴어야 방에로구나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어긴여랑 사테로다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선소리랑 곳이나망정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훗소리덜 잘받아줍서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선소리랑 늦이나망정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검질손이랑 조직조직 노려보자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뒷명에야 나오나가라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 사테(검질 매는 소리)

뒷소리랑 조직조직 받아주소 어긴여랑 사테로구나  
 그만저만 다쫓아나 가는구나 어긴여랑 사테로구나  
 우리네역군 다지쳐간다 어긴여랑 사테로구나  
 앞명에랑 소곡소곡 어긴여랑 사테로구나  
 뒷명에랑 조직조직 어긴여랑 사테로구나

### 마당질 소리

어요하야 어야도하야 혀요하야 어야도하야  
 때리고 가자 어야홍아 어요하야 어야도홍아  
 앞명에도 뒷명  
 앞으로랑 어요하야 어야도홍아  
 아혀요하야 어야도홍아 오요하야 어야도홍아

앞으로랑 어요하야 조근조근 어야도홍아  
때려도보라 어야도하야  
깨어나지라

### ㄱ래ㄱ는 소리 1

이연이연 이어도호라 이연이연 혼저골앙  
저녁이나 일칙호영 먹어사  
이연이연 이어도호라 이연이연 이어도호라  
혼저골앙 설른애기덜  
혼저먹영 잠을 재와사 호느네

### ㄱ래ㄱ는 소리 2

이연이연 이어도고래  
이연이연 이어동 흐라 이어고래 이어도 흐라  
이연말랑 말아근 흐라  
이연이연이연 이어도고래 이연이연 이어동 흐라  
이여도고래 이여도고래  
이연이연 전싱곳은몸아  
이연이연 이어도고래  
고래골앙 역들젠 흐난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저고리앞섭 다 절단난다 이연이연 이어도 흐라  
뱅이지영 역들젠 흐난  
이여도고래 이여도고래  
치매각이 전줄이 난다 이연이연 이어도 흐라



‘드래’는 멧돌을 일컫는 제주도박이 말이다. ‘드래 드는 소리’는 멧돌을 돌리며 부르는 노동요다.  
<사진출처:《제주100년》/제주도/홍정표 사진,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 ㄹ래ㄹ는 소리 3

유월밤에 밀닷말골안  
주억상에 다섯을 얻어단  
시아바님에 하나를 드리고  
시어머님에 하나를 드리고  
서방놈에 하나를 드리고  
시누이에 하나 주고  
나적시는 주억상에가 하나이로구나



방아를 짚으면서 부르는 노동요인 ‘방에소리’에 “시콜방에, 니콜방에”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 사진이 바로 시콜 곧 ‘세콜 방에’를 짚고 있는 모습이다. 두셋이 번갈아가며 방아를 짚으려니 박자가 잘 맞아야 할 터, ‘방에소리’가 효율을 더욱 높였을 것이다.

<사진출처:《제주100년》/제주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방에소리

이연이연 이여도호라

가시오름 강당장칩에

시콜방에 새글렁 가는구낭

전성곳은 이내몸가난

니콜방에 새맞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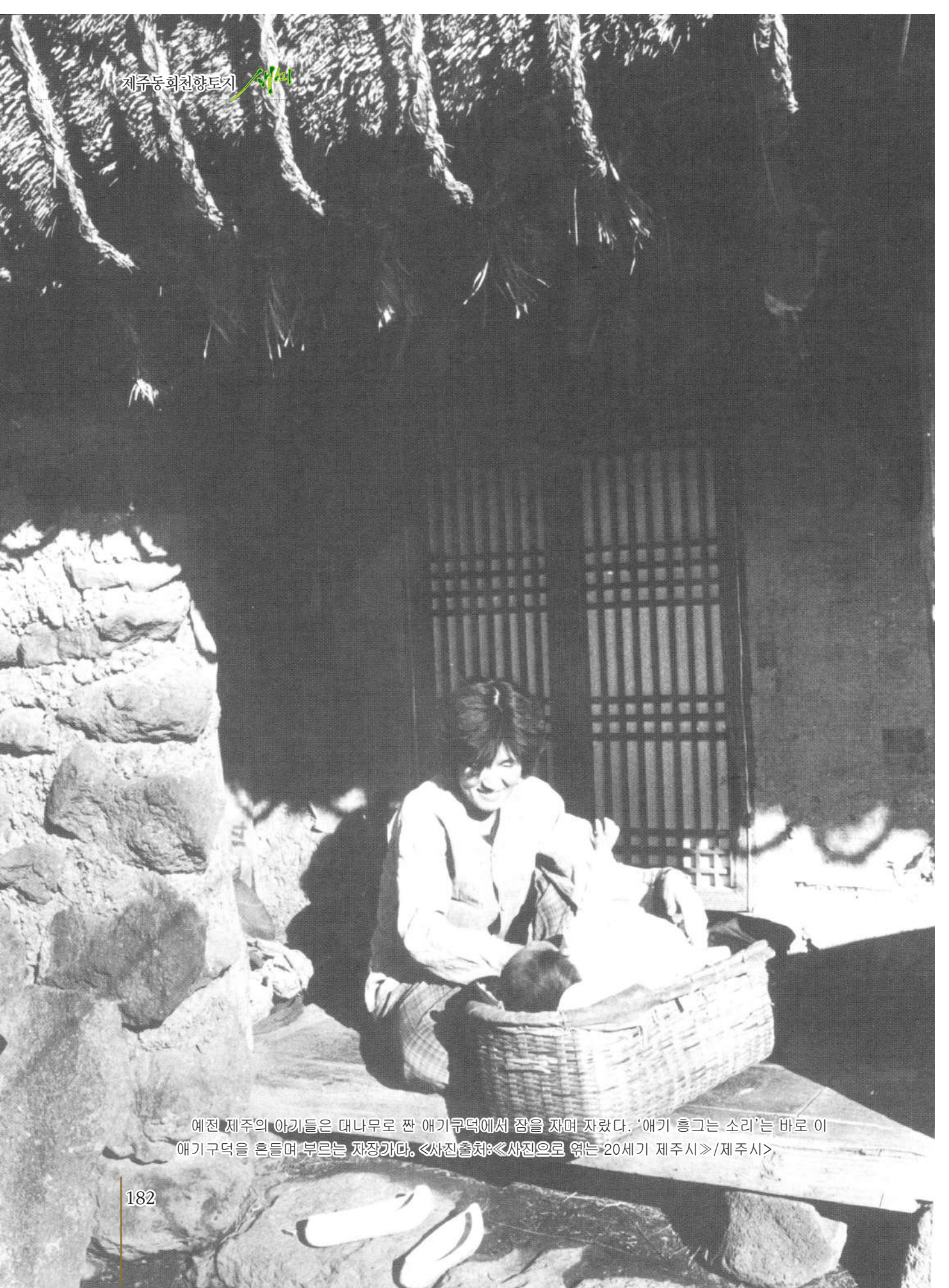
이여도호라 이여도호라

## 시집살이 노래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 어뭇데가  
 끝도말고 이루도말라  
 장독같은 시아방에 암탁같은 시어명에  
 물꾸러같은 서방님에 코생이같은 시누이  
 고치장이 맵다흔들  
 요네 시집살이만이나 매울소냐

## 애설 때 부르는 노래

수박꼭질 똑딱데려  
 강남의백철을 쓰르륵비왕  
 방관제로 휘휘저성  
 검은씨랑 빼어두고 붉은점흔점을 너를줄까  
 그도저도 내가싫소  
 산에올라 틀도래나 오미자나 개살구나  
 그것이나 헛여볼까  
 그도저도 내가싫소  
 그러면 어찌 헛나  
 한새팽풍 알둘리고 죽지팽풍 위둘러서  
 원앙정이 잣베개에 은실금실 놀아볼까  
 그도저도 내가 싫소  
 그러하면 고팡간에 들어가면 대족이나 소독이나  
 그도저도 내가싫소  
 정지간에 들어가면 대말치나 소말치나



예전 제주의 아기들은 대나무로 짠 아기쿠덕에서 잠을 자며 자랐다. '애기 흥그는 소리'는 바로 이 애기구덕을 흔들며 부르는 자장가다. <사진출처:《사진으로 엮는 20세기 제주시》/제주시>

### 애기 흥그는 소리 1 (자장가)

어진 할마님자손

윙이자랑 윙이자랑 자랑

선잠자게 말앙

할마님자손 잘재와줍서

윙이자랑 윙이자랑

혼저자불라 저녁도 어두검저

저녁허여사 느네 어머니 아버지가

먹을거 아나가 윙이윙이 속숨 흐라

### 애기 흥그는 소리 2

윙이자랑 윙이자랑

우리애기 자는소리

놈의애기 우는소리

윙이자랑 윙이자랑

나라에 충성동이

윙이자랑 윙이자랑

일가방상에 화목동이

윙이자랑 윙이자랑

부모조상에 효도동이

윙이자랑 윙이자랑

우리애긴 잘도 노는구나

혼저자라 자라

윙이자랑 윙이자랑

## 전래동요

### 비올 때

비야비야 오지마라 장통밧디 물넘엄저  
묵은우장 걷어동 새우장쓰라

### 신방말축을 가지고 놀 때

산드레 절흐라  
산드레 절흐라

### 도롱이를 가지고 놀 때

도롱아 도롱아 지계정 나오라

### 두메기를 가지고 놀 때

맹맹이 춤추라 사랑방에 데령가마

### 강이

오범벅지라 소범벅지라  
밥흐라 죽흐라

### 떡 감은 후 물 떨어서

물할애비 떨어지라  
니깡나깡 갈망떡게

### 벼룩 노래

입이 좁고 가슴에 먹물을 품어  
등이 넓으니 짐이나 지어봤느냐  
두 손톱 사이에서 죽어봐라